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늘나라와 현세의 관계에 대한 소고

- 마태복음 하늘나라 비유를 중심으로 -

작성자 : 주 시 영

2015년 11월 7일

목 차

<요 약>

제 1장 시작하는 글

제 2장 하늘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 I. 하늘나라는 존재하는가?
- II. 하늘나라는 어떠한 이념을 추구하는가?

제 3장 하늘나라와 이 세상은 어떠한 관계인가?

- I. 이 세상과 인간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가?
- II. 이 세상과 인간은 어떤 사명과 축복을 받고 만들어졌는가?
- III. 하느님에게 이 세상과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 IV. 하느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제 4장 마치는 글

<요 약>

본 연구는 성경에 언급된 하늘나라와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의 창조와 인간이 끊임없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하여 징벌·용서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어진 상황에서 신약성경은 사랑 등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이념에 맞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는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목표와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온전히 이해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 ‘하늘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제3장 ‘하늘나라와 이 세상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제4장 마치는 글로써 마무리된다.

제2장에서는 먼저, ‘하늘나라는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현세적 기준으로 살폈다. 성경에서 말한 ‘하늘나라(kingdom of heaven)’가 한 국가이기 위해서는 현세적조건의 국가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요소는 국토, 국민, 주권이다. 첫째, 국토측면은 다음 성경내용에서 찾았다. 예수님이 요르단 강에서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고 강 밖으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와 축복해 주셨다. 또한,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하자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면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다. 둘째, 국민측면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셋째, 주권측면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다음, ‘하늘나라는 어떠한 이념을 추구하는가’에 대해 살폈다. 그 이념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해준 내용 중에 있었다. 그 것들은 다음과 같았다. 하늘나라는 공평성·수용성·책임성을 추구하며, 번식과 번영을 축복하고, 인내·절제를 통한 공의로운 심판과 권선징악을 실현한다. 또한 영원한 생명·사랑·용서와 자비가 충만하고, 은총을 베푼다. 그리고 그 곳에 계시는 하느님은 인간을 각자의 사명에 맞게 부르시고 계명을 주며, 진리와 지혜로움으로 가득하고, 근면·성실·선함의 추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보상을 이루시는 분이다.

제 3장에서는 먼저, ‘이 세상과 인간은 어떤 기준으로 창조되었는가’를 살폈다. 성경에 의하면 하느님은 천지만물을 ‘그분 보시기 좋게’, 즉 그분의 뜻에 맞게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면서 그분의 품성에 맞게 하셨다.

둘째, ‘하느님에게 이 세상과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살폈다. 하느님이

만든 천지만물은 창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것들이다. 빛은 빛과 어둠으로 갈라져 낮과 밤을 구분하고, 공창은 물과 물 사이를 갈라 하늘과 바다로 구분하고, 땅이 드러나게 하여 식물들이 자라게 하며, 해·달·별들은 낮밤, 절기, 년·월을 나타내고, 물고기, 들·집짐승 등의 동물은 바다와 공중과 땅위를 채워 번식하고 번성토록 하셨다. 인간에게는 ‘번식과 번성’의 축복을 내리시며, ‘자연을 지배’하라는 사명을 부여하면서 당신이 만드신 생물을 양식으로 주셨다.

셋째, ‘하느님에게 이 세상과 인간은 무슨 가치가 있는가’를 살폈다. 먼저, 공간·시간적 측면에서 이 지구는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체가 있는 장소이며, 인류는 지구의 역사에서 아주 최근 극히 짧은 기간에 등장했다. 하느님에게 이들 모두는 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넷째, ‘하느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살폈다. 구약시대에는 -최초 인간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바빌론 유배와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이 인간에게 수 없는 은총과 자비를 내리셨으며, 인간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에 대하여 일일이 간여하여 징벌을 내리셨다. 신약시대에는 백성들을 하늘나라 등에 대해 다시 가르쳐 교화토록 하는 데에 치중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랑과 자비로 그 일들을 하셨으며, 본인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분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집중하신 일은 복음전파, 질병치유, 마귀추출 등 이었다.

한편 이들 중 질병치유와 관련하여, 구약시대에는 하느님이 주로 징벌에 의해 발생한 질병을 치유해주셨다. 그 질병발생과 치유의 특색은 전염병 성격을 지녀 집단적 일시적이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공생애 활동의 삼분의 일이 치유행위였다. 치유내용은 죽은 자의 회생을 비롯하여 중풍, 혈루병, 앓은뱅이 등 난치성환자를 회복시켰다. 그분은 항상 환자들을 붙잡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고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고쳐주셨다. 이러한 치유행위는 열두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으며, 오늘날까지 치유되는 기적의 은총이 이어지고 있다.

제 4장에서 종합하고 결론을 지었다. 성경에 나타난 하늘나라는 현세 기준의 국가요소를 갖추고 기능을 수행했다. 그 나라에 계신 하느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온갖 피조물에게 각각의 사명을 부여하셨고, 특히 인간들에게는 번식과 번성의 축복을 내리시고 온갖 생물을 양식으로 주시면서 그들을 지배하라는 사명도 부여하셨다. 그분에게도 이 지구와 인류는 신비스럽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그에 따라 하느님과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창조이후 -이스라엘 백성 이끄심, 구마와 질병치유 등- 끊임없는 구원행위를 해오셨으며, 심지어 아드님을 희생케 하면서까지 인간이 하늘나라에 속하였음과 그 뜻에 맞게 살아가야함을 알게 해 주고 계셨다.

하늘나라는 현세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나라이다. 이들 나라 사이는 비록 형이상학적이긴 해도 존재와 그 근거가 되는 관계이다. 이 관계는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온 인류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 여긴다.

제 1장 시작하는 글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이다. 신앙(信仰)이라 함은 ‘무릎 꿇고 엎드려 우리러 바라보며(仰),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행위(信)’이다. 필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은 무엇이고, 그 대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 그 대상과 관련하여, 하늘나라는 과연 존재하며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그 믿음행위와 관련하여, ‘믿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사람이 마음의 불완전함 속에서 ‘무엇을 믿어야겠다는 의지’ 문제인가 아니면 삶에 기초를 둔 확실함에서 나온 것인가 등이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20)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명령한 것’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즉 ‘하늘나라(kingdom of heaven)’에서 추구하는 것들에 관련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확실함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부여받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그 일을 하기위해 오셨고 그 내용을 가르치셨다. 당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데 이어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신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삶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과학문명의 발달이 첨단을 달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한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과거 사람들에 비해 믿음이 더 강하고 삶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현세의 복잡해진 일을 따라가기에도 힘들어 하는 판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하여 더욱 모르고 있다고 여긴다.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셨다면 그 깨닫지 못함과 약한 믿음에 대하여 옛날처럼 야단치시면서 하늘나라를 알리기 위해 다시 설명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셨다. 이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하늘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 직접 설명해주신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우리 나름대로 하늘나라에 대한 분석과 확인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그 확인을 통하여 그 나라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도 더 크게 생길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알게’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하늘나라와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다. 그 하늘나라는 과연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인지를 알아보고, 거기에서 얻어진 삶이 우리의 믿음을 커지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그 연구 자료는 성경이다. 그 이유는 - 하늘나라가 인간의 이성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늘나라에 대한 자료를 성경, 특히 마태복음서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성경의 여타내용과 선행 연구자료 등을 제한적으로 참조·사용한다.

그 진행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본장에 이어

제 2장에서는, ‘하늘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에 대해 논한다. 과연 그 나라는 존재하며, 한 나라로서 기능도 수행하는가를 살펴본다. 이어서 마태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들을 통해 하늘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념과 가치 등을 찾아본다.

제 3장에서는, ‘하늘나라와 이 세상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 논한다. 먼저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느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서 하느님은 그 인간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고 무슨 사명을 맡겼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하느님이 만드신 인간 등은 그분의 입장에서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들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여기서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아울러 하늘나라와 이 세상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하느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그 구원내용을 구약과 신약시대로 나누고, 또 구원의 하나로 이루어진 인간의 질병치유에 대한 내용을 구약과 신약시대로 나누고, 특히 예수님의 치유사역 내용을 찾아본다.

제 4장에서는, 본 연구내용을 되돌아보면서 결론을 맺는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 연구결과에 대하여 그 효과와 가치를 평가해본다.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의 방향과 자세를 다듬어본다.

제 2장 하늘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마태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출생에서 부터 부활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것이다. 그 내용은 그분의 정체성과 공생애기간 동안 활동에 관한 것이 중심을 이룬다. 그 활동 내용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는 것이며, 또한 하늘나라가 존재하며 인간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하는지에 대한 말씀 등이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공생애동안 치유 및 구마행위와 더불어 말씀으로 하늘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다. 그 가르침은 직접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과 더불어 비유를 들어 이해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분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마태13:11, 이하 ‘마태’는 생략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도를 갖고 예수님은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기위해 비유 등으로써 하늘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전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분이 누구이기에 하늘나라에 대하여 설명하셨는가?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없어야한다. 이를 염려해서인지 복음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나셨으며(1:18), 그분이 성장하여 요르단 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으며(4:17), 그 후 본인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였음은 물론 마귀들까지도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8:29)하면서 알아보았으며, 그분께서는 치유행위 등을 통하여 중풍환자를 원경지에서 말씀으로 회복케(8:13) 하셨는가하면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시어 가라앉게 하는 등의 인간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활동하셨다.(28:1-10)¹⁾

이들 내용을 보아 그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고, 그분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마태복음서에 나타난 하늘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설명자격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다고 본다. 또한 그 복음서에는 저자 마태가 기술한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마태가 그분 제자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기술내용이 다른 공관共觀 복음서의 내용들과 상호 일치한 점 등에서 진실로 부터 벗어남이 없다고 여겨진다.

이제 이를 근거로 하늘나라에 대하여 그 주인인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직접 설명한 내용 등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구성하고 풀이해본다.

I. 하늘나라는 존재하는가?

마태복음서에 의하면 하늘나라라고 ‘나라(kingdom)’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나의 나라가 되려면 국가의 요소를 갖추고, 그 기능을 수행해야한다. 그 복음서에는 순전히 관념적이지 않은 채 현세적 차원에서 국가요소라고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한다. 그리고 국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이 설명되어야한다.

1. 국가요소 측면

하늘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복음서는 현세적 차원에서 국가라고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현세적 의미에서 요구하는 국가 또는 나라의 구성요소는 국토, 국민, 주권의 세 가지이다.

먼저, 한 국가의 구성요소 중에서 국토國土측면을 살펴본다. 예수님이 요르단 강에서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고 강 밖으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와 축복해 주셨다. 또한,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시

1) 공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이후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으로 기술되어있으나 마태복음서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라고 말하자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면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했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위로 내려 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3:16-17)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16:19)

이 내용들과 관련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열쇠로 매고 풀고’ 등은 현실적,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다. 이중 ‘하늘이 열리고 (the heavens were opened)’와 관련하여, 우리는 머리 상공에 있는 공중을 통상 하늘(sky)로 표현하면서 그 장소를 텅 빈곳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공중은 엄연히 우리 국토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공領空이며, 그 영공은 최소한 대기권大氣圈 이내에서 공기로 가득 차 있는 장소이다. 마치 영해領海가 물로 가득 차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는 분명히 물질이다. 물질이기 때문에 열리고 닫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또한 대기권 밖은 이 세상과는 다른 공기들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경계지역은 공기의 밀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과하기위해서는 고도의 과학적 장비와 기술·방법이 필요하다.²⁾

따라서 복음서에서 말한 ‘하늘이 열리고’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대기권출입에 따른 필요한 절차와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며, 아울러 ‘하늘의 열쇠’는 대기권 통과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방법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 또는 상상할 수 있다. 이 추정이 무리하지 않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대기권 밖의 우주 어느 부분에 하늘나라가 국토를 갖추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삶을 영위해가는 경우 등을 생각하면 반드시 땅위에서만 국가가 존재해야한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國民 측면의 내용이다. 국민은 한 나라 안에서 국적을 지니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써 국가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 마태복음서에는 하늘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 하느님 이외에 ‘천사’들이 나온다. 예수님이 십자가위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시어 삼 일째 되는 주간 첫 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등이 무덤을 보러 갔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어서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말했다. 그 천사들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여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해주었다.

2) 달나라 우주선이 항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기위해서는 대기권을 재돌입해야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온도가 2천도에서 6천도에 이르며, 진입각도는 5도와 6도 사이를 유지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벗어나는 경우 우주선이 물수제비처럼 튀겨나가 안드로메타 저편으로 나아가 영원한 우주의 미아로 남게 된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 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28:4). 그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28:5).

성경에 의하여 우리는 ‘하늘에 천사’가 있었으며, 그들이 지상에 내려와 경비병들에게 나타났으며, 또한 여자들에게 말까지 한 사실에 의해 실존적 존재로서의 천사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통치자인 하느님의 명령에 의해 실제 행동하는 자들이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수석사제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 붙잡히실 무렵 그의 한 제자가 칼로 저항을 하자 그를 나무라는데 에서도 볼 수 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하면 당장에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네 곁에 세워주실 것이다”(26:53).

여기서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라 함에서 군단은 고대 로마군대조직의 최고 단위로써 약 육 천 명의 병력과 그와 비슷한 수의 보조병력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군단 열두 개의 병력숫자에 맞먹는 천사가 즉시 동원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조직으로서 군대가 있음은 군인을 낳아 키우고, 또 군대를 지원하는 다른 일반집단 즉 국민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

셋째, 주권主權 측면의 내용이다. 주권은 한 국가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근원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 세상의 국가들은 주권의 소재를 국가이름 또는 헌법 조항 등에서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서는 ‘하늘나라(kingdom of heaven)’를 ‘하느님 나라(kingdom of God)’로 표기하기도 했다.(19:24) 이는 하느님 나라가 하느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이다. 하느님의 권능에 대하여 성경은 창세기 등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자세히 기술했다. 이들 내용은 그분께서 거주하며 통치하는 장소 예컨대, 하늘나라에서도 그분이 절대자로서 권력을 갖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 권력은 한 나라의 주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갈릴래아를 두루 돌아다니시며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5:34)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좌와 그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23:22)

여기서 ‘하느님의 옥좌(God's throne)’는 그 분이 임금으로서 앉는 의자를 말한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앉는 자리가 있음은 그 나라에 통치권자가 있고, 통치권이 있으며 그 뒤에는 당연히 통치권이 나오는 주권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 주권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있지만 군주국가에서는 군주에게 있다. 하늘나라는 하느님이 어좌에 앉는 임금으로서 주권과 통치권을 갖고 행사하는 형태의 나라라고 본다.

2. 국가기능 측면

위 내용들으로써 하늘나라는 국가 구성요소인 국토를 비롯한 국민 그리고 주권이 일단 모두 갖추어졌다. 따라서 현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늘나라는 국가로서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엄연히 존재한다고 본다. 이렇게 한 나라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인정한 상태에서, 위 국가요소에서 나온 내용들을 한 나라의 ‘통치 기능적’ 차원에서 풀이해본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파견되어 실행해야하는 사명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 국가의 주요사업을 위하여 그 나라의 왕자인 국가 주요인물을 해외에 파견키로 결정한 셈이라고 치자. 그리고 그 첫 단계로 왕좌에 계신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파견, 즉 탄생을 위하여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시키셨다.(1:18) 이에 그녀의 약혼자가 이를 꺼려 파혼하기로 결심하자 하느님의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 그 경위를 설명하여 만류시키고 하늘나라의 과업을 진행해 나갔다. 예수님이 출생이후 위협에 처하자 천사들이 다시 나타나 이집트로 피신케 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까지 도왔다.(2:13)

그 후 예수님이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고나자 과업의 진전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하늘나라로 부터 축하의 메시지가 전해져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이전 붙잡히는 과정에서 말씀하시길 ‘하느님에게 청하면 열두 군단의 천사가 내려와 곁에 서게 되리라’(26:53)라고 하셨다. 이는 한 국가가 국토 밖에서 사명을 수행중인 자국민을 위해 군대를 파견하는 기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현 세상의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하느님의 사자使者인 천사가 국경인 하늘을 넘어 내려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의 동굴 입구에 있던 돌을 밀어내고 그분의 부활을 도왔다. 그분은 부활이후에도 계속 활동하시다가 하느님이 정한 시기에 구름에 감싸여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을 시켜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내려 올 것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늘나라는 성령을 내려 보내시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전파 활동하는데 필요한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나라의 사업을 계속 수행케 해오고 있다.(사도 2:1-47)

이러한 예수님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은 현세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늘나라가 국가로서 조직을 갖추고 기능수행을 훌륭히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II. 하늘나라는 어떠한 이념을 추구하는가?

하나의 국가로서 하늘나라에는 어떠한 존재들이 모여 살면서, 무슨 일을 어떤 기준에 의해 수행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누구도 이성에 의한 노력으로는 구할 수 없다. 그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고 인간이 가서 볼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사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 하늘나라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은 하늘나라를 알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 방법은 말씀과 치유와 구마행위 등이었으며, 말씀 중에는 특히 비유를 들어 강조하신 경우가 많았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한 이유를 밝히셨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13:13)

여기서 우리가 그분의 비유말씀을 분석하여 종합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윤곽과 이념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내용은 하늘나라에서 추구하는 국가의 이념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것들이 때로는 하느님의 뜻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하느님은 그 나라의 주권자이며 통치자이므로 결국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하늘나라의 이념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종합해본다. 마태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11가지이다.³⁾ 이를 9가지로 정리·분류하여 설명한다.

첫째, 공평성과 수용성·책임성을 추구하며, 그것들에 통치의 기초를 둔다. 이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13:18-23)에서 나온 내용으로 하늘나라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다. 그리고 기회를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자세와 노력에 의해 그 결실이 달라진다.

둘째, 번식과 번성을 추구한다. 이는 위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공평성을 기초로 하되 받아들이는 자의 노력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도록 하셨지만 하느님은 근본적으로 모든 구성원의 번식과 번성을 기대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강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은 ‘겨자씨·누룩의 비유’(13:31-33)에서 나타났다. 작은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하게 되면 매우 크고 유익해져 새들이 날아와 앉게 되고, 또한 누룩도 부풀어 오르면 처음보다 몇 배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심판과 권선징악이 이루어진다. 이 내용은 ‘그물의 비유’(13:47-50)에서 나타났다. 어부가 던져 건져 올린 그물 속에는 여러 가지 고기들, 즉 유익한 고기와 그렇지 못한 고기가 있다. 어부가 이들을 고르고 구분하여 나쁜 고기는 버리듯이

3) 나타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숫자가 성경을 읽는 사람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하늘나라에서도 세상 종말에 반드시 사람을 심판하여 선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징벌을 주게 된다.

넷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다. ‘보물의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13:44-46)에서 나온 내용이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그 자리에 숨겨두고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매입하며, 또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 역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보물을 산다. 그 정도로 영원한 생명은 값어치 있어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자기의 몸과 마음 재산을 다 바쳐 하느님을 따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

다섯째, 용서와 자비가 있는 곳이다. 이들은 ‘매정한 종의 비유’(18:32-35)에서 나온 내용이다. 채무자가 주인한테 딱한 사정을 호소하여 빚을 탕감 받았음에도 본인의 채무자에게는 매정하게 굴어 그를 구금했다.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를 처벌하고 채무를 상환토록 했다. 하늘나라에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하되 악한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징벌을 가하는 곳이다.

여섯째, 사랑과 은총이 베풀어지는 곳이다. 이는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20:8-16)에서 나온 내용이다. 포도밭 주인이 일꾼을 구함에 있어 온 종일 일할 사람을 구함은 물론 시장에 갈 때마다 일감이 없어 서성거리는 그들에게 일을 시킨다. 그리고 샀은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그 이유는 자기한테 그만한 권한이 있으며, 그 권한의 행사를 함에 있어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으며, 그것이 가엾은 자들을 돕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로서 자기 의지대로 가엾은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일곱째, 하느님의 호의·부르심과 계명이 있는 곳이다. 이들 내용은 ‘혼인 잔치의 비유’(22:1-14)에서 나온 내용이다.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심부름꾼들을 죽였다. 이에 분노한 왕은 그 사람 등을 모두 없애 버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데려왔으나 그들 중에는 악한 사람이 있어 예복을 갖추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난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천지만물의 운행을 주재하시는 분이로서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며, 하느님 백성으로서 계명을 따르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진다.

여덟째, 진리추구의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이 이념은 ‘열 처녀의 비유’(25:1-13)에서 나온 내용이다. 결혼식을 치루야 하는 처녀들이 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지혜로운 처녀는 등에 기름을 넣고 기다렸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즉시 마중 나가 맞이한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여자는 대책 없이 잠을 자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허둥대다가 일을 망쳐 버린다. 이처럼 하느님을 정성으로 섬기며 그분 뜻을 헤아려 항상 준비와 경계함 속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느님 자체가 진리이시며, 그분을 찾고 따르는 것도 진리이며 지혜이다.

아홉째, 근면·성실·선함의 추구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들은 ‘탈렌트의 비유’(25:14-30)에서 나온 내용이다. 하늘나라에서는 많은 돈을 위임 받은 종들처럼 하느님의 뜻에 맞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되면 선한 자는 영원한 생명 속에 더욱 번성하게 되지만 악하고 게으른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 결과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되는 곳이다.

이상의 내용들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추구하는 이념들로서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선하게 살 수 있는가에 하는 점에 귀착된다고 본다. 여기서 윤리적 측면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는데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느님나라에 대한 알림과 그에 따른 가르침을 주기위한 것이기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내용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강조하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한다”(22:37-38)는 내용에 귀결된다고 본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갈5: 5:22)등의 의미도 포함되었다고 여긴다.

제 3장 하늘나라와 이 세상은 어떠한 관계인가?

앞 장에서 하늘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하늘나라도 현세적 기준에 의한 국가로서 요소를 갖추고, 그 기능도 훌륭히 수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하늘나라에서 이루지고 있거나 추구하고 있는 이념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 내용은 하느님은 선한 분으로서 진리자체이므로 그 분을 사랑하고, 그 뜻에 맞게 자선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성실 근면하게 생활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현세적 기준으로 볼 때 그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함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냐하는 윤리·도덕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그러면 왜 우리 인류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한대로 살아야하는가? 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여야만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만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결국 하늘나라와 이 세상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이를 위해 이 세상을 비롯하여 피조물 그중에서도 특히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하여 존재론과 관계론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I. 이 세상과 인간은 어떠한 기준으로 만들어졌는가?

성경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포함한 천지만물을 만드셨다. 그분께서는 7일간에 걸쳐 빛의 창조를 시작으로 하늘과 물, 바다·식물, 해·달·별 등을 통한 밤낮과 절기,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땅에서의 짐짐승·들짐승을 창조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다.(창1:1-31)

인간을 만드실 때 하느님께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

자”(창1:26)라고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 본인을 지칭하는 말이다.⁴⁾ 그리고 ‘비슷하게’와 ‘모습’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이 말들은 내적 심상(心象)(image)의 비슷함과 육체적 외모(likeness)의 모습으로 우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구분은 실익이 없다고 본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어서 인간기준의 육체적(flesh)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성경의 그 다음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목적으로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다. 이는 -하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와 비슷하게’ 과 ‘우리의 모습’이- 하느님을 대신하여 인간이 온갖 것을 다스리는 ‘기능내지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성경은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모습’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말은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느님의 심상 또는 성품과 비슷하게 만드셨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느님의 성품은 과연 어떠한가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복음서 등에서 나타난 하느님의 권능과 성품모두가 이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들은 하느님의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창조성, 전지전능함, 영원성, 불변성, 영성을 비롯하여 그분의 성품에 대한 내용이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하늘나라를 통하여 나타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하느님의 ‘성품’은 “공평성·수용성·책임성을 추구하며, 번식과 번영을 축복하고, 인내·절제를 통한 공의로운 심판과 권선징악을 나타낸다. 또한 하느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이시며, 사랑·용서와 자비심이 있는 분이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사명에 맞게 인간을 부르심과 계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진리와 지혜로움으로 가득하시며, 근면·성실·선함의 추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보상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느님은 이처럼 본인께서 지니고 있는 전지전능한 권능과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성품을 하나로 묶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에 인간은 이러한 하느님을 모습을 닮고 태어났다. 그러나 인간은 그분을 절대로 능가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그분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II. 이 세상과 인간은 어떤 사명과 축복을 받고 만들어졌는가?

하느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각 사물과 인간에게 사명과 은총을 주셨다. 먼저 사물들과 관련한 내용을 본다. 그 분께서는 첫 날 만드신 빛은 빛과 어둠으로

4) 본인을 지칭하면서 단수가 아닌 우리(We)라는 복수형을 사용함으로써 논의의 소지가 있으나 이는 본 연구의 주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다.

갈라져 낮과 밤으로 불리게 하셨으며, 둘째 날 만드신 궁창은 물과 물 사이를 갈라 하늘과 바다로 구분되게 하셨고, 셋째 날에는 전날 만드신 물을 한쪽으로 몰아 물 즉,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으로 하여금 식물들이 자라나도록 하게 하셨으며, 넷째 날에는 하늘에 빛물체 즉, 해·달·별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년)를 나타내게 하셨다. 다섯째와 여섯째 날에는 물고기, 생물, 들짐승, 집짐승 등의 동물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와 공중과 땅위를 채우고 번식하고 번성토록 하셨다.(창1:2-25)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하느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창1:28)

그분은 인간에게 ‘자식을 많이 낳는 번식(fertile)과 번성(multiply)’의 축복을 내리셨다. 그분이 피조물에게 이 같은 축복을 주신 경우는 다섯째 날 만든 동물들과 함께 할 뿐이었다. 그에 더하여 하느님은 인간에게 모든 ‘자연을 지배’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만드신 생물을 모두 인간의 양식으로 주셨다.

“이제 내가 온 땅위에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 이 너희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창1:29-30)

이처럼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온갖 은총과 큰 사명을 부여받고 태어났다. 우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는 축복에 더하여, 둘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는 사명, 셋째, 먹을 양식까지도 부여받았다.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더 할 수 없는 축복과 큰 사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존재이다.

III. 하느님에게 이 세상과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느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각 피조물에게 사명과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 도대체 그분에게 이 세상과 인간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 무엇 때문에 하느님은 인간을 만들어 온갖 것을 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노심초사하셨는가? 그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들의 존재가치를 공간 측면과 창조목적 측면에서 살핀다.

첫째, 공간-시간적 측면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잠시 성경과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현세적 관점에 의하여 찾아져야 한다고 본다.

먼저, 공간측면에서 우주를 생각해보면, 그 넓이는 빛이 백 억년 동안 지나가도 그 끝에 도달하지 못할 만큼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생각해보자. 이 지구가 속해있는 은하계에는 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고, 또 은하계도 그 정도의 숫자만큼 있다고 한다. 이를 비교해 보면 이 지구상 해안가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 그 모래 중에 하나가 지구인 셈이고, 그 지구에만 유일하게 유기물의 생명체가 있다. 우주 가운데 유독 지구만이 밝은 빛 아래에서, 맑은 공기와 물로 가득 채우고 인간을 비롯한 온갖 생명체가 살아서 활동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는 사막가운데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오아시스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아름답고 경이로운 존재이다.

다음, 시간축면에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우주 중에서 지구의 탄생만 해도 수 십 억년이 넘는다. 그 시간 중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최근이며, 그 기간도 불과 오천 년을 넘지 못하는 정도이다. 이를 인간 생애에 비유하면 오랜 기다림 끝에 손가락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셈이다.

그러니 하느님조차 이 세상과 생명체들을 손수 만드시고 나서 “보시니 모든 것들이 참 좋았다”라고 함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느님에게 지구와 인간은 경이롭게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본다.

둘째, 창조목적 측면이다. 하느님은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축복과 함께 각 피조물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사명들이 상호 유기적인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인간사명에 귀결되었다. 따라서 이들 피조물 중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영향은 다른 부분에 미치게 되고 마침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하느님의 창조사업 목적자체를 쓸모없게 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성경말씀은 ‘길 잃은 양羊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18:12-14)

여기서 양 백 마리 중에 하나는 경제적 가치로 계산할 때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나머지 아흔아홉 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를 포기하거나 희생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 진정 두려워해야 할 내용은 양이 길을 잃게 되는 일이 바로 그 한 마리 또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경우이다. 그 때마다 잃어버린 양을 포기해야한다면 머지않아 대부분의 양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양 사육하는 일까지도 그만두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사업목적수행과 달성이 불가능해져 이를 포기해야만 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목자가 길 잃은 양을 다시 찾을 수 있음은 안도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비유를 현재 인간사회에 적용하면, 최근 이 지역에서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메르스(MERS)’라는 병이 성행하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아직 치료수단이 없어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면 죽을 수 있음을 알고 두려워했다. 그런데 그 병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이 병을 이겨내어 살아났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병

을 치유하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간주하고 매우 기쁜 일로 반길 것이다.

그 기쁨은 하느님입장에서 피조물 특히 인간을 바라볼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본다. 만약 인간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때 예컨대, 사람들이 치명적인 전염성에 걸렸거나 죄악에 빠진 경우 또는 사람의 양식인 짐승 또는 농작물이 병 등으로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경우 사람도 감소하게 되어 하느님의 창조목적 사업수행이 어려워진다. 그러하니 하느님께서도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심이 지극히 당연하다.

여기서 반대로 성경에서 하느님의 계명으로 강조한 내용, 즉 인간이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해야하는 이유도 함께 살펴본다. 성경은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누누이 강조하셨다. 그러함에도 인간들에게 이 계명은 어렵고도 어려운 과제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왜 그토록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이유 설명이 여기서도 가능해졌다. 하느님의 입장에서 본 이 세상과 인간들에 대한 내용을 반대편에서 즉,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이 보기에 우주 속에 있는 이 지구는 유일무이하게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생명체들 하나하나에 하느님의 사명과 축복이 주어져있다. 그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며, 오로지 하느님 한 분 뿐이다. 그러니 그분을 사랑해야한다. 그리고 그분께서 만든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들은 비록 개별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느님 입장에서는 각각의 사람 모두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로서 하느님이 창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잘못되면 나쁜 전염병이 전염되듯이 나도 그 잘못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을 지배함에 있어서도 하느님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그분을 대신하여 사랑으로써 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하느님에게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피조물 특히 인간은 귀하고도 소중한 존재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악을 거듭 저지르면서 하느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게까지 했다. 그러함에도 그분은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로 인간을 구원해오셨다. 하느님에게 인간은 구원해야만 하는 대상이었다.

IV. 하느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성경은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하느님의 창조질서인 선함에서 벗어나 악함의 속으로 잘못 빠진 인류를 구원해낸 역사서라고 여겨진다. 이에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구원하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서 필자는 구원이라 함은 ‘하느님이 창조질서

에서 어긋난 상태에 있는 피조물을 제 자리로 돌아 가도록하려는 그분의 용서와 은총 등 모든 노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노력은 성경에 나타난 내용 중에서 현세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다.

성경에서 구원의 내용과 방법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나누어 살펴보고, 아울러 신약시대 예수님의 주요사역 중의 하나였던 질병치유를 구원과 관련하여 그 의미와 방법을 찾아본다.

1. 구약시대 구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신 다음 에덴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동산 한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더불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창2:9) 아울러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창2:17)라고 악에 빠져들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창3:1-21) 이로써 최초 사람은 원죄를 지었고, 인간은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는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하시면서 사람을 에덴동산에서 추방하셨다.(창3:22-23)

이 징벌은 하나님이 창조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구원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 이후 모든 인류는 선과 악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 세상으로 나왔다. 그리고 후손들도 악행으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일이 계속된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며 마음 아파”(창6:6)했고, 진노하며 인간들을 죽음으로 처벌했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창6:7)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실망하고 처벌하신 후에도 노아와 계약을 맺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라고 다시 축복을 해주셨다.(창9:1-17) 그러나 그의 자식들도 술 취한 아버지에게 죄악을 저질렀고, 그 대가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한 세월이 흐르고 나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선하게 보이는 사람을 부르시어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고 축복해 주셨고,(창12:1-9)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 없는 이가 되어라.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면서 그와 계약을 맺으셨다.(창17:1-2) 그러나 아브라함의 부인은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시기하여 사막으로 그들을 내쫓았고, 그의 손자인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형의 복을 가로채었으며, 야곱의 자식들은 아우 요셉을 시기하여 외국인에게 팔아넘기는 악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스무 닢에 팔아넘겼다.”(창37:28)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사백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생활을 했으며, 그 후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모세의 지휘아래 바닷물을 가르고 건너는 등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이집트를 탈출했다.(탈14:15-31)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침내 기원전 1240년경에 약속의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정착함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곧 바로 우상숭배를 비롯한 많은 죄악을 계속 저질렀다. 그 결과 정착이후 불과 3백년이 지난 기원전 930년에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그 후 기원전 722년에는 북 이스라엘이, 기원전 587년에는 남 유대가 멸망하게 되었다.(2역36:17-23) 이처럼 구약시대의 성경은 인간의 악함에 대하여 하느님이 은총과 징벌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가르쳐주었다.

2. 신약시대 구원

신약이 이루어진 예수님시대에는 구원방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수님은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마구간 구유에 누워야 했고, 헤롯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어야 했다.(2:1-12) 그 후 공생애를 거치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온갖 사랑과 선행을 베푸셨다. 그분의 구원에 대한 신념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였다고 본다. 예수님이 진리를 강조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리이신 하느님을 망각하고 그분에게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깨우쳐주기 위함이었다. 인간은 창조된 이후 하느님의 축복으로 ‘번식과 번성’을 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비교와 경쟁’속에서 죄도 커지고 많아졌으며 그로 인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처벌을 많이 받았다. 그러함에도 그들의 죄악은 계속되었고, 결국 나

라까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하느님은 그동안 그분의 약속과 계명 그리고 처벌과 구원도 다른 방법으로 해야만 했다고 여긴다. 그 방법은 백성들을 다시 가르쳐 깨우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희생해야 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공생애 기간 중에 하신 일은 복음전파를 비롯하여 질병치유, 마귀추출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이들 중 복음전파는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느님 백성이 되어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함을 강조하셨다. 본인이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그분의 사명을 대신하기 위함을 알리려고 애쓰셨다. 그리고 그분은 더 나아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비롯한 많은 질병치유와 귀신들린 사람에게서 그것들을 몰아내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기도 했다. 그러함에도 바리새인 등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악령의 우두머리 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로 몰아세우기까지 했다. 이러한 일들의 반복 속에 결국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에 대한 희생양이 되시어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이유이며 증거이다.

이 같은 신약시대 구원행위는 예수님에게서 그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제자들과 신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놓고 하늘나라선포와 하느님 계명대로 살 것을 가르쳤다. 이처럼 신약시대 이루어진 구원행위의 특성은 징벌보다는 자비와 사랑이었다. 그리고 구원자의 권위보다는 오히려 겸손과 희생 봉사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대부분 고아 과부 이방인 등의 약자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의 은총을 베푸시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3. 질병치유를 통한 구원

앞에서 설명한 하느님이 구원하신 내용을 구체적이고 현실적 문제인 질병치유를 통하여 살펴본다. 이는 구약과 신약시대에 모두 이루어졌다.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치유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 분은 열두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있다’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어라. 나병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10:7-8)라고 하셨다. 이는 하늘나라에서는 병자들이 없거나 발생해도 바로 치유되거나 치유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현세에서도 무병장수는 구원의 상징이 된다.

또한 질병치유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오늘날 의학이 과학문명의 발달에 힘입어 눈부시게 발전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지만 질병 중에는 치유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치유행

위 특히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고친 질병들은 지금도 난치 또는 불치의 병들이 많다. 그와 같은 치유행위가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하는 점에서이다.

첫째, 구약성경에 나타난 질병치유를 살펴본다. 먼저, 질병발생을 보면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느님에 대한 불순종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이들 중 하느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경우는 질병발생이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재앙 성격을 지니며 전염병 등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질병은 하느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이 질병들의 특성은 징벌성격을 지니고 있어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 예로는 하느님이 이집트에서 완고한 파라오를 징벌하기위해 내리신 가축병,(탈9:1-8) 하느님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뱀을 보내어 물게 하여 생긴 병,(민21:4-9) 다윗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자 3일 동안 7만 명을 쓰러지게 한 흑사병(1역21:1,14-15)들이 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피부병(레13:2-6), 곰팡이 병(레13:49-50)처럼 계절적, 기후적 또는 위생적 요인에 의한 것들이었다.

다음, 치유방법을 보면 그 역시 하느님에 의한 치유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질병발생 원인에서 언급한 질병들의 치유는 징벌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부분 일시 재앙현상으로 지나가거나 하느님께서 바로 원상회복케 해주셨다. 성경은 질병치유방법에 관하여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은 탈출기에 있다고 본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이집트인에게 내린 어떤 징벌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낮게 하는 주님이다.”(출15:26)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광야에서 헤매다가 마라에서 물을 만났으나 소금기 때문에 마실 수 없을 때 하느님께서 이를 마시게 해주면서 한 말씀이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에 대한 약속에는 하느님의 명령과 법도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하느님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곰팡이 병, 피부병, 성병, 나병 등 질병의 치유에 대하여 레위기 등에서 율법으로 그 치유방법을 상세히 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셨다.(레11-15장) 이렇게 하느님은 질병을 일으켜 백성을 다스리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심과 아울러 모든 질병의 치유에 대한 권능을 지니고 행사하여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셨다.

둘째, 신약성경에 나타난 질병치유를 본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질병발생

의 경우 그 종류가 다양한데 그 원인은 역시 하느님과 관계가 잘못된 데에서 비롯된다. 물론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태생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길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이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라고 했다. 이에 예수님은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요9:1-3)라고 대답하셨다.

신약에 나타난 질병들은 개별적이며, 그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대과학으로도 치유를 기대하기 어려운 곱추(루13:13), 귀먹어리(마르7:35), 혈루증(9:20), 중풍(4:24) 등의 선천성, 난치성 병들이었다. 이들 질병을 예수님이 모두 고쳐 주셨다. 그분께서 치유하신 사례는 4복음서에 의하면 40가지가 넘으며, 또한 치유에 관한 기록은 복음서내용의 삼분의 일이 넘는다. 예수님의 질병치유방법은 개별적이며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모습이 많았는데 그 질병들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본다.

방법별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의한 치유를 비롯하여 안수(touch)에 의한 치유, 말씀과 안수에 의한 치유 그리고 타액사용에 의한 치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방법들은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님의 권능에 의하여 인류구원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치유능력과 병자들의 치유자세를 보면, 예수님의 모든 치유는 고통을 받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위대한 자비와 사랑을 드러낸 것이었다.⁵⁾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타인의 상처와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연민과 자비로움이 가득한 마음이었다.⁶⁾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14:14)

바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가엾이 여기시는 자비롭고 온유한 마음으로 고쳐주셨다. 한편 예수님은 치유과정 등에서 죄의 용서받음 즉 회개의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본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특성내지 의미는 사랑과 자비였다. 예수님의 자비란 사랑의 열정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거기에 동참하여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며 나누고 돌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 죄인들 용서, 그리고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치유와 구마 기적은 이제 도래한 하느님 나라와 그 다스림의 현존을

5) , 『그리스도론』 (서울: 생활성서사, 2011), 94.

6) 박준양, 『그리스도론』, 118.

드러내는 구원의 표징이었다.⁷⁾

한편 신약시대의 질병치유는 예수님이후에도 열 두 명의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와 신자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중에 본인이 직접 치유사역을 하신 것 이외에 제자들에게도 치유사역을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본인이 지닌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마귀를 쫓아내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고 병자들을 치유해주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까지 복종시켰다(루19:17)고 보고했다. 사도시대 이후에도 치유의 기적은 교회와 순교자 그리고 성인 등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치유의 능력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肢體로서 “병을 고치는 은사”(1고12:28)에 의해 나온 것이다. 이는 예수님의 은총에 근거를 둔 것이며, 인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사랑과 희생정신이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느님과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애처롭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고쳐주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다.

제 4장 마치는 글

지금까지 하늘나라와 현세와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여러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우주라는 넓은 공간 속에서 그 숫자가 얼마인지 계산조차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별들 가운데 유독 지구만이 대기권을 형성하면서 그 안에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지구의 역사가 수 십 억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 겨우 몇 만 년 전부터 생명체가 나타났고, 왜 인류역사는 불과 수 천 년에 지나지 않는가? 그리고 누가 무슨 힘으로 이 지상에서 땅은 풀과 나무 등의 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자라게 하고, 동물들은 그 풀과 열매를 먹고 성장하며, 인간들은 그 동물과 식물들을 먹고 살게 하는 먹이 사슬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이 신비롭고 경이로울 정도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였다. 이들 문제는 인간이 이성 작용을 통하여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해답은 하느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성경에 나타난 내용에 의하면 이 세상이외에 하늘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는 하느님이 계신 나라였다. 그 하늘나라가 과연 현세의 기준에 부합되는 국가인지를 비롯하여 국가라고 한다면 현세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살폈다. 그 결과 하늘

7) , 『그리스도론』, 118.

나라는 현세 기준의 국가요소를 갖추고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는 하느님에 의해 다스려지며, 그 이념으로는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한 내용들에 들어있었다. 그 하늘나라의 입장에서 이 세상과 인류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었으며, 인간의 입장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창조이후 -이스라엘 백성 이끄심, 구마와 질병치유 등- 끊임없는 구원행위를 해왔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늘나라에 속하게 되어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한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는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영위해야하나'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본다. 구약성경에 의하면 하느님은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신 후에는 동식물을 들을 양식으로 주시면서 하늘과 땅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관리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본 점은, 그러면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세상을 지배하고 관리토록 하기위한 것에서 모두 끝났는가에 대해서이다. 만약 그렇다면 하느님의 천지만물 창조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예컨대 다른 차원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인간이 죽음 이후에 가야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 그 세계가 바로 하늘나라이며, 그 나라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한 이 세상은 인류가 준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운행도 그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일들은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분의 인간창조 목적달성에 맞도록 하기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인간을 위해-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싶다.

이 점과 관련하여 구약성경은 하늘나라와 하느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주지 않았다. 대신 하느님은 “감추어진 것은 주 우리 하느님의 것이지만 드러난 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것이니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천해야한다”(신 29:28), 그리고 “일을 숨기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이고 일을 밝히는 것은 임금의 영광이다”(잠25:2)라고 하셨다. 이에 반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와 하느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주었고, 아울러 그 나라와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인간이 살아가야 함을 강조해주었다.

종합컨대 성경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현세적 의미에서 존재함을 알게 되었으며, 그 나라에 계신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인류를 위해 하신 일도 알게 되었다. 또한 하늘나라와 이 세상과의 관계가 분명해졌다. 하늘나라는 현세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나라이다. 이들 나라 사이는 비록 형이상학적이긴 해도 존재와 그 근거가 되는 관계이다. 이 관계는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늘나라의 이념과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일만 남아있다고 여겨진다. 끝.

참고문헌

<성경>

『성경』.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찬.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회, 2009.

『THE CATHOLIC STUDY BIBLE』.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서적>

김태규. 『형이상학의 역사』. 서울: 한글, 2009.

박준양. 『그리스도론』. 서울: 생활성서사, 2011.

장 욱.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 서울: 동과서, 2003.

조규만. 『하느님 나라』. 서울: 서울대교구 꾸루실료 사무국, 2014.

강우일 발행. 『매일미사』.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년 각 월호.